

익산시 10월 문화가 있는 날 다채

클래식 공연부터 체험·강의까지

익산시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인 28일과 해당 주간(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에 익산예술의전당, 보석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특별한 할인 혜택을 마련해 결실의 계절 10월의 마지막 주를 알차게 채울 예정이다.

미술관에서 즐기는 인문학 강의, 클래식 공연, 체험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28일 오후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권혁산 선생님을 초청해 '조선시대 초상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펼친다.

29일 오후 7시 30분에는 미술관에서 즐기는 색다른 음악회가 열린다. '미술관 음악회'는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힘이 되는 음악, 힘을 주는 음악을 테마로 펼쳐지며, 캐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차르다시 등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곡들과 드보르작 유포레스크와 모차르트 반짝반짝 작은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과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등 클래식 두 곡이 절묘하게 메시업된 곡들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진 '레이어스(LAYERS)'는 김재영(바이올린), 김대연(첼로), 강대명(작곡/피아노) 등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연주력을 갖춘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음악의 다양한 면을 레이어스만의 색깔로 새롭게 선보이는 팀이다.

W미술관에서는 30일 오후 4시30분 '나만의



익산시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인 28일과 해당 주간(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에 익산예술의전당, 보석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스트링 아트', 31일 오후 2시 '신사임당의 초충도 테라리움' 체험 프로그램을 문화소의계 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박물관, 도서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문화 체험

보석박물관에서는 28일 문화가 있는 날 관람료를 30% 할인한다. 화석전시관은 공사로 인한 관람이 불가하다.

또한 10월 31일 ~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마스크 비즈 스트랩 만들기, 천연보석 소망나무 만들기, 천연 보석 팔찌 만들기, 공룡화석 지우개 만들기, 사금 채취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왕궁리유적전시관에서는 31일 오전9시 학예연구사와 함께 떠나는 '무양길을 찾아 떠나

는 여행'을 통해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등 무왕 관련 유적을 답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한박물관에서는 28일 오전 10시 오감만족 공예체험 '실로 엮어내다, 마크라메'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송도서관에서는 29일 오후 7시 원데이 도예클래스를 통해 수저통과 받침 만들기, 30일 오후7시에는 가족 카드지갑 만들기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황등도서관에서는 31일 오전 10시 우리집 미니정원 만들기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서관은 2배로, 영화는 5천원으로

모현·영등·마중·부송·황등 시립도서관에서는 28일 '공공도서관 두배로 day'를 진



오늘 권혁산 연구사 초청 강의
보석박물관, 관람료 30% 할인
내일 미술관에서 색다른 음악회
모현 시립도서관 등에서
'공공도서관 두배로 day' 진행
오늘 1인당 도서 2배 대출받아

행하여 당일 1인당 도서를 2배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익산 CGV, 롯데시네마에서는 28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상영하는 영화를 할인된 가격 5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시는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운영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청춘마이크 헤드폰 버스킹

'따로, 또 같이' 오늘부터 31일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10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으로 청춘마이크 헤드폰 버스킹 '따로, 또 같이' 공연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올해 청춘마이크 전복권 참여 예술인 총 35개 팀, 120여 명이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로 모여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관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 해 헤드폰을 통해 음향을 송출하며 감상하는 방식으로 공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공연 일정은 28일과 29일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30일과 31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2회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 별 공연 팀은 28일에 효자동그루브, 송장별레, 슬로우진, 재즈옴, 놀플라워, 이상한 계절, 열레디어썸, 29일에 프로젝트앙상블 런, 간피아모, 뮤즈그레인, 소리모다, 서울헌터즈, 창작민속악단 악바리, 토리밴드, 30일 오전은 고나밴드, 고산유수, See in, 여시, 휴아, 오후는 Petal Dance Project, 무지회사, 센세이션브라스 앙상블, Bass on tap, 김성수모던재즈트리오, 31일 오전은 은교, E.P.L., 선율로리, Sing Sang Hwang, 스크램블즈, 오후는 가악프로젝트, EUNO, 춤추는 여행가, 페이지, 아트리 엔터테인먼트가 각각 공연을 선보인다. /장은성 기자

댄스와 힙합의 만남... 내달 6일

김제시 '블랙 뮤직 위드 댄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1월 6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힙합과 댄스가 결합된 퍼포먼스 '블랙 뮤직 위드 댄스(Black Music with Dance)'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김제시에서 주관해 이루어진다.

또한 힙합과 알앤비(R&B)를 총칭하는 '블랙 뮤직'이라는 말에 걸맞게 M.net에서 방영한 '고래래퍼'에 출연해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었던 래퍼 박준호와 SBS '판타스틱 듀오' 왕중왕전 MVP를 거머쥔 R&B가수 손정수가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독창적인 무대를 꾸며줄 여성 4인조 댄스팀 칠리치크가 각종 K-POP 댄스를 비롯한 댄스가요, 영화OST 리믹스 등에 맞춘 다양한 춤을 준비했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진단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박노태 기자

리스트포원, '2대2 믹시드 비보이 배틀' 열어

강석민·최승빈 '우승', 장영준·김수민 '준우승' 차지

전주시 홍보대사 리스트포원(대표 조성국)이 관내 비보이와 비걸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2대2 믹시드 비보이 배틀(우승 50만원, 준우승 30만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18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2020 전주 비보이 문화학교'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올해 전국 최초로 오프라인 배틀 대회(공식 비보이 행사 중)를 선보였다.

배틀 대회에는 비보이·비걸 총 24명(전주 19명, 마닐라 1명, 서울 1명, 경기 1명, 전남 2명 등)이 참가했고, 예선전을 거쳐 16명을 선발한 후 추첨을 통해 2명씩 팀을 이뤄 8강 토

너먼트를 진행했다. 예선전은 한 명씩 차례대로 1분 이내 비보잉을 선보이는 오디션 방식으로 심사위원 2명이 예술성, 창의성 등 점수를 매겨 합당한 다음 상위 16명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우승은 강석민(전주)과 최승빈(서울)이 준우승은 장영준(전주)과 김수민(안양)이 차지했으며, 전주 지역 비보이들의 일취월장한 실력을 볼 수 있었다.

강석민 비보이는 "올해 처음 배틀 대회를 참여한 것 같다. 비보잉을 꾸준히 연습하면서 실력 발휘 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관객이 있는 비보이 배틀이 지속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국 대표는 "앞으로도 전주시 비보이 문화학교를 통해 지역의 비보이·비걸들이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시·군 협력을 통한 지역 간 균형적 문화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2020 전라북도 문화정책 콘서트(이하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시군 우수 문화정책사례 발표

전북 문화정책 콘서트... 완주 서지연씨 '품앗이 놀이터' 도지사상 수상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시·군 협력을 통한 지역 간 균형적 문화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2020 전라북도 문화정책 콘서트(이하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콘서트는 시·군별 문화예술분야 민간전문가와 5개 문화재단 실무자로 구성된 문화비리협의회가 추천한 문화활동가 14명이 지역 사례를 발표하고 문화정책을 제안해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시상하는 자리로, 전주문화재단·익산문화관광재단·완주문화재단·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공동 주관한 행사다.

이 행사는 지난 20일 도내 5개 기초문화재단 관계자를 비롯, 지역활동가, 문화비리협의회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지역별 문화활동가 14명은 '로컬 커뮤니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로 각 지역의 현안 및 대안을 발표했다.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인력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정책 등 다양하게 제안했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평가단 3명 및 문화비

리협회 14명의 오프라인 심사와 도민평가단 42명의 온라인 심사를 반영해 도지사상을 비롯한 전주시장상, 익산시장상, 완주군수상, 고창군수상, 전복권 문화재단 기관장상, 도민평가단상을 선정했다.

도지사상의 영예는 완주 서지연 씨(품앗이 놀이터)가 차지했고, 전주시장상에는 김두항 씨(장수, 협동조합501르페), 익산시장상에는 육성민(진안, 청년협의체), 완주군수상에는 최준 씨(순창, 관광두레 청년FD), 고창군수상에는 오승동 씨(정읍, 정읍시공동체협의회) 등이 수상했다.

서지연씨(품앗이 놀이터)는 완주 지역 공동육아 커뮤니티 운영 사례를 '행복한 완주살이 이야기' 영상으로 제작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의 장단점을 발표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14개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이 만들어지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기초재단, 시군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재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실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순창 평남·과정마을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은애 센터장)는 27일 '수재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同行) 실천'을 순창군 평남마을과 과정마을 일원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유관기관 공모사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근거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및 직장문화 확산 필요에 따라 전국단위 확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9년 시범실시 후 올해는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인증 전·후 컨설팅,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함께 하는 동행사업(공동체 사업) 등이다.

특히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 가족친화공동체 조성사업 '나눔 장터'는 도내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준비기업 등 총 21개 기업이 참여했다. 나눔 장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순창군 평남마을과 과정마을 88가구 주민에 전달됐다.

이와 함께 2015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대자인 병원은 피해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 진료와 골밀도검사, 치매검사 등을 실시했다. 또 영양주사와 가정내 필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